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연준 점도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 (초점)-연준 내년 세번 인상 전망에도 꿈쩍 않는 원화채..무엇이 달라졌나?
  - ◇ (시장진단)-바닥 보이지 않는 FX 스왑포인트..연례행사?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소아과 병동 창밖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로 분장한 사람들이 환자 와 가족을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플라비오 로 스칼조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17일 종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20(%)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20(%)  |
|---------|----------|--------|---------|----------|------------|-----------|--------|---------|----------|
| 달러 대비   | 1,180.9  | 0.0%   | -8.0%   | +6.5%    | 유로         | 1.1239    | -0.6%  | -8.0%   | +8.9%    |
| 100엔 대비 | 1,044.6  | -0.3%  | 0.7%    | +1.1%    | 엔          | 113.67    | -0.3%  | -9.2%   | +5.2%    |
| 유로 대비   | 1,334.7  | 0.1%   | -0.6%   | -2.3%    | 위안         | 6.3690    | 0.1%   | 2.5%    | +6.7%    |
| 위안 대비   | 186.25   | -0.5%  | -10.7%  | -0.3%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0(%)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0(%)  | 다우존스       | 35,365.44 | -1.7%  | 15.5%   | +7.2%    |
| 코스피     | 3,017.73 | 0.2%   | 5.0%    | +30.8%   | 나스닥        | 15,169.68 | -2.9%  | 17.7%   | +43.6%   |
| 코스닥     | 1,001.26 | -1.0%  | 3.4%    | +44.6%   | S&P500     | 4,620.64  | -1.9%  | 23.0%   | +16.3%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0(bp) | MSCI APxJP | 619.13    | -2.2%  | -6.5%   | +19.8%   |
| 국고채 3Y  | 1.767%   | -3.8bp | 79.1bp  | -38.4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0(bp) |
| 국고채 5Y  | 1.940%   | -6.0bp | 60.5bp  | -14.5bp  | 미국채 2Y     | 0.640%    | -1.5bp | 51.9bp  | -144.0bp |
| 국고채 10Y | 2.153%   | -4.8bp | 44.0bp  | +3.0bp   | 미국채 10Y    | 1.407%    | -7.5bp | 49.5bp  | -99.8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20(%)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20(bp) |
| 유가(WTI) | 70.86    | -1.1%  | 46.0%   | -20.5%   | 한국 5Y      | 21.4bp    | 0.5bp  | -0.6bp  | +0.1bp   |
| 금(현물)   | 1,797.68 | 0.9%   | -5.2%   | +25.0%   | 일본 5Y      | 17.5bp    | 0.2bp  | 2.5bp   | -4.5bp   |
| TR상품지수  | 3,273.93 | -0.9%  | 22.2%   | +7.8%    | 중국 5Y      | 42.0bp    | -2.5bp | 14.0bp  | -3.6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2월 20일(월)>

- 기재부,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16:30)
- 기재부,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 공개(19:00)

### <21일(화)>

- 한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관세청, 12월 1-2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 노트 2021-30)(12:00)

### <22일(수)>

- 금감원, 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통계청,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12:00)
- 기재부, 2차관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16:30)

### <23일(목)>

- 기재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11:00)
- 금융위 · 금감원, 2022년 산출 중단 예정 비 USD 리보 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12:00)
- 통계청,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12:00)
- 기재부,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17:00)

### <24일(금)>

- 한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06:00)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2022년도 목표 초과 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등)(15:30)
- 기재부,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17: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2월 20일(월)>

- 중국, 12월 대출우대금리 (10:30)

### <21일(화)>

- 호주, RBA 12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9:30)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2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2:30)
- 미국, 3분기 경상수지 (22:30)
-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 <22일(수)>

- 일본, BOJ 10월 27~28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3분기 기업의익 수정치 · GDP 확정치 (22:30)
- 미국, 11월 전미활동지수 (22:30)
- 미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 미국, 11월 기존주택 판매 (자정)

### <23일(목)>

-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게이다렌(經團連) 위원회 참석
- 미국, 11월 건축허가 (22:00)
- 미국, 11월 개인소득 · PCE 물가지수 · 내구재 주문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자정)
- 미국, 11월 신규주택 판매 (자정)

### <24일(금)>

- 일본, 11월 CPI (08:30)
- 일본, 11월 건축주문 · 주택착공 (14:00)
- 미국 휴장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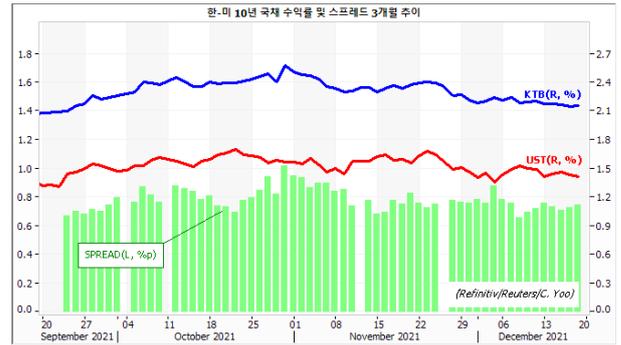
##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역내 수급 동향 따라 주로 움직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195 원이다.
- 연말 장세로 접어들면서 달러/원 보폭도 줄어들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예상치 않은 발작 가능성은 줄었다.
-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한층 선명해졌고,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긴장감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과 관련해 막연한 공포감이 확산되진 않더라도 매서운 확산세 때문에 투자심리가 움츠러들 수도 있다.
- 이에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투자심리와 달러 흐름을 좇으며 보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단기 하단이 1180 원에서 굳혀질지 지켜볼 일이다.
- 현재까지는 연말 수급 특징을 찾기 힘들다. 양방향 수급이 무난하게 소화되고 있어 이번 주도 환율은 이러한 흐름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 이번 주 주목할 해외 지표는 중국 대출우대금리 발표와 미국 11월 PCE 물가지수 및 개인소비 등이다.
- 국내는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와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한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 추이와 글로벌 금리 움직임 등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 세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원화채 금리 하락세가 지속됐다.
- 미국 등 주요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하면서 동시다발적인 '돈맥 조이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수준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시장에선 코로나 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불안감으로 내년 1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2월에도 어쩔 수 없이 정책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관건은 결국 코로나 19 확진자 수다. 방역 지침 강화에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며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경우 1월 동결을 넘어 1분기 인상 불가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코로나 19 확진자 수 급증세가 어느 시점엔가 꺾인다면 1월 기준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할 듯하다.
- 국내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까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여기서 더 무리하고 싶어 하진 않을 듯하다. 문제는 외국인이다. 국제선물 월물 교체 이후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연말 변동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연준 점도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12월 16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결정권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15일(현지시간)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점치는 등 지난 9월의 한 차례 금리 인상 전망과 비교해 볼 때 연준이 더욱 매파적으로 기울었다는 점은 명확해졌다.

그러나, 현재 공식 중인 연준 이사 세 자리가 채워질 예정이라는 점과 코로나 19 팬데믹 본격화 이후 인플레이션, 고용 등 경제 회복 관련 지표들의 신뢰성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점도표 자체가 언제든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8%로 1982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이에 대응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 작년 팬데믹으로 도입한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점도표 역시 연준 정책 결정권자 대부분이 내년 말까지 0.75%~1% 수준의 금리를 예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방향 측면에 있어 테이퍼링 가속화와 점도표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반영할 때 과거 수준 이상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준 위원회 구성원이 바뀐다. 현재 공식인 세 자리는 몇 달 안에 채워질 예정이며,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윌리엄 스프리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유색인 고용 증가를 확인한 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 지표는 코로나 상황 급변으로 일관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왔다. 고용 지표 예측은 보통 때

보다 더 어려워졌다.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데도 지난 10월 구인공고가 실업자 수를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다. 소매판매 지표 역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호조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5일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이르면 1월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대적인 영업 중단 가능성은 작지만 고용과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판매믹 관련 공급망 붕괴 문제로 물가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다른 지표들이 그렇듯이 연준의 점도표 자체도 과거처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초점)-연준 내년 세번 인상 전망에도 꿈쩍 않는 원화채..무엇이 달라졌나?**

서울, 12월 1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원화 채권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빨라진 통화정책 정상화 시계가 국내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채권시장의 차분한 반응을 '의외'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이 내년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국내 통화당국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현재 국내 시장의 내년 말 기준금리 컨센서스인 1.50% 역시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선제적 인상한 韓,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에 초점 맞출 것

물론 시장 참가자들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에 단기 달러 금리 시장이 이같은 결과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원화채 시장의 반응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한 변화가 시장금리를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상황 개선과 회복 소비에 힘입어 지표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어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은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A 국내 은행 스왑 딜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계가 빨라지는데 미국 국채 금리 수익률 곡선은 금리 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플랫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미래 경제 성장 전망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내년 기준금리를 1.5%로 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1.75%, 2%까지 갈 수 있다는 논리는 향후 경기 전망이 달라지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반을 넘어선 만큼 원화 금리는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결국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얼마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미국도 2%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여기서 크게 밀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대출금리 급등 문제에 직면한 국내 통화당국이 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라며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자칫 1분기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현 시장 안정은 수급의 힘일 뿐"..내년에 다시 승부

다만 현재의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연말 수급과 연관지어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는 인식, 통화정책 전환기에 나타나는 1차 충격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안도감이 당장은 큰 데다 연말 자금 집행에 따른 캐리 수요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초 국내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되고 미국의 정책금리 정상화 일정이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단축되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12월이라 2년 이하 만기 채권으로 캐리 목적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 시장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2월에 자금이 집행되고 1월에는 캐리로 수익을 내는 게 통상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1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캐리 자금들이 주의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월이냐 2월이냐에 따라 단기자금의 이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이 되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D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나가면 국내 통화당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연말, 연초 수급이 우호적인 상황이니 미국의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캐리 장을 바라보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부분 커브 플랫 전망이 강한테 손실 보상 관련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며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시장진단)-바닥 보이지 않는 FX 스왑포인트..연례 행사?

서울, 12월 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서 달러/원 FX 스왑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17일 오전 달러/원 FX 스왑 포인트 1 개월물은 -75 전까지 빠져 작년 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가운데 다른 기간물도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스왑 포인트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시장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비드 주체는 크게 헐거워지고, 이에 가격 하락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조짐이다.

이를 두고 우선 거론되는 요인은 수급의 미스 매치다.

통화 선물을 비롯한 단기물 중심의 해외투자 관련 롤 오버 수급에 따른 부담이 반영 중이지만, 이전보다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재정 비드가 사라지는 등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이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FX 스왑 포인트가 이렇다 할 저항 없이 밀리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의 대응은 한층 어려워졌다.

A 은행 스왑 달러는 "오피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비드 주체가 없어 심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가격 바닥 인식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비드에 나서는 주체가 더욱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FX 스왑 시장 흐름은 거의 매년 말 반복되고 있다.

우선 초단기 쪽에서 달러 자금에 대한 이상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 우려를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연말마다 거래 참가자들이 줄고 소극적인 북 운동 등에 시장 유동성이 축소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반영이 더욱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은행들이 연말 규제 비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있다.

B 은행 달러는 "연말에 사실 자금이 꼬인 것도 아닌데 에셋이 몰아쳐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 연말 롱 웨이가 더 심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가 확인된 데 따른 시장 부담은 있지만,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C 은행 달러는 "시장의 큰 방향은 전환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아직 연준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캐쉬 쪽은 멀쩡하고, 연말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 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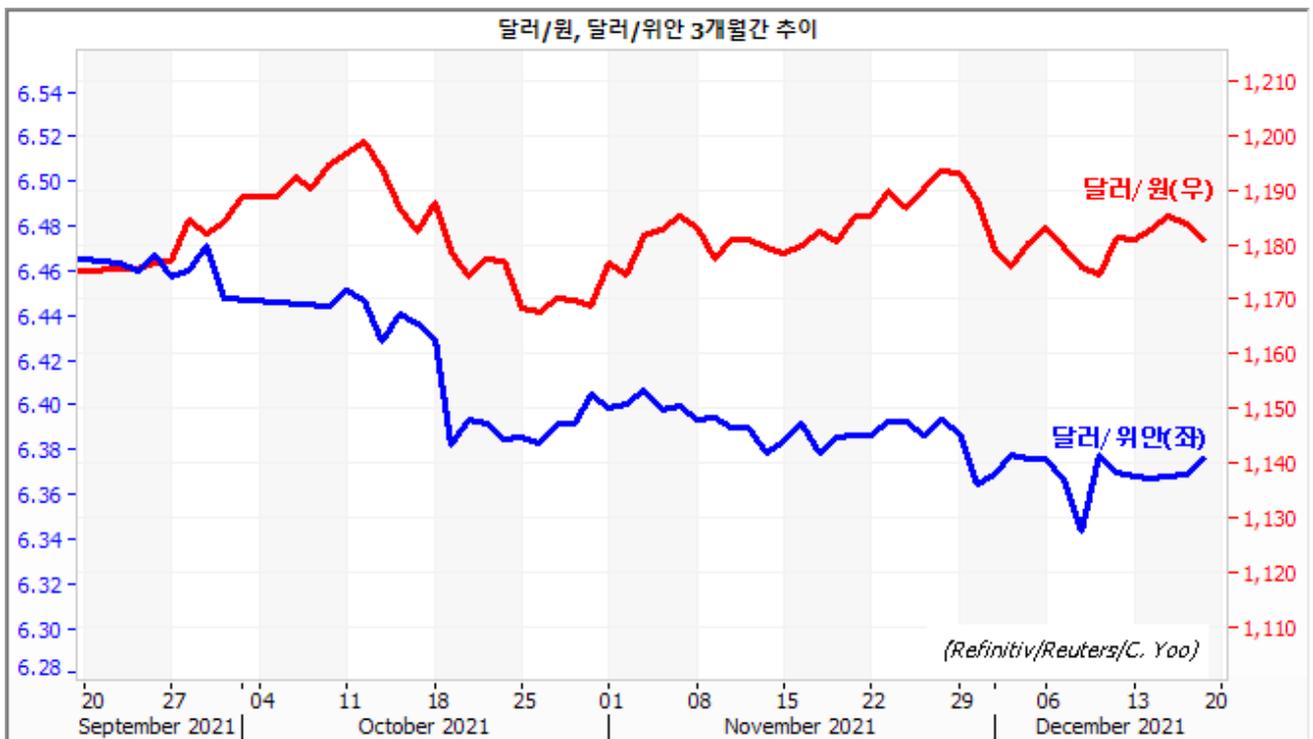
작년 12월의 경우를 보자. 월 중반까지 FX 스왑 포인트가 가파르게 하락 압력을 받다 마지막 주에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이같은 패턴은 시장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외환당국도 인식하고 있다.

D 은행 스왑 달러는 "통화 선물 및 자산운용사의 롤 오버 물량 등은 반복되는 수급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연말 이슈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라면서 "수급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스왑 포인트는 더 밀릴 수 있고 이에 현재로서는 가격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에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